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

백명화¹, 안성아¹, 박찬경¹, 이해량¹, 공정현^{1*}, OTGONSEND OCHIRBAT², MUNKHTUYA ENKHBAYAR², NARANTSETSEG ENKHTUYA², SERGELENTSETSEG JANCHIV², TSETSGEE NASANJARGAL², DOLGORJAV MYAGMARJAV², GANKHUYAG GOCHOOSUREN²
¹진주보건대 간호학과, ²Fundamental Nursing Department School of Nursing,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Republic of Mongolia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Mongolia

Myung-Wha Baek¹, Seong-Ah Ahn¹, Chan-Gyeong Park¹, Hae-Rang Lee¹, Jeong-Hyeon Kong^{1*}, OTGONSEND OCHIRBAT², MUNKHTUYA ENKHBAYAR², NARANTSETSEG ENKHTUYA², SERGELENTSETSEG JANCHIV², TSETSGEE NASANJARGAL², DOLGORJAV MYAGMARJAV², GANKHUYAG GOCHOOSUREN²

¹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Republic of Korea

²Fundamental Nursing Department School of Nursing,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Republic of Mongolia

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몽골과 한국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남 소재 1개 대학 간호대학생 187명과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간호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간호교육기관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to improve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Mongolia and Korea by comparatively studying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s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nursing students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87 nursing students from one college in Gyeongnam and 100 nursing students from the National Medical University of Mongolia and data analysis were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 was Korean nursing students had lower subjective happi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an Mongolian nursing student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Mongolia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higher the subjective happines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and in Mongolian nursing students, the lower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higher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nd Mongolia to develop a joint program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기관의 일차적 교육목표는 이론교육과

*Corresponding Author : Jeong-Hyeon Kong(JinJu Health College)

Email: wjdgus0063@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0, 2021

Revised December 13, 2021

Accepted December 18, 2021

실습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 과정은 필수적이다[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임상실습을 최소 1,00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간호교육 기관은 이에 맞추어 임상실습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2].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련 문헌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공부와 일, 실습업무부담, 임상실습 현황, 사회적 스트레스, 과제물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4]. 몽골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교육은 3년 과정과 4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과정인 경우 1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4년 과정의 경우 2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내 몽골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몽골 출신을 포함한 의과학생 6044명 중 47.5%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의과대학생의 학업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증가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임상수행능력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저하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6]. 그러므로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감정 중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주관적 행복은 긍정-부정의 연속선 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의거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7]. 그러므로 주관적 행복감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적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8].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대상자를 돌보는데 있어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복감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9-10]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돌봄 간호행위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지각된 스트레스[8], 전공만족도와 정서조절능력[12],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13], 스트레스와 우울[14]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이후 국교가 수립된 이후 한국 간호대학에서도 몽골 간호대학과 서로 협력하여 간호 교육에 대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에 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국가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두 나라

간에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몽골의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비교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경남 J시에 소재한 대학교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87명과 몽골 국립의과대학에 재학생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총 287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 확인을 하기 위한 t-test 분석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각 군의 최소 인원은 88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참여한 각 군의 대상자는 최소 인원을 충족하였다.

2.1 연구도구

2.1.1 주관적 행복감

Lyubomirsky와 Lepper[15]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16]이 번안

한 도구로 총 4개 문항, 7점 리커트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최저 4점에서 28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75이었다.

2.1.2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avastava[17]가 개발하고 Kim와 Lee[18]이 수정·보완한 2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와 Lee[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2.1.3 임상실습 만족도

Cho와 Kang[19]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20]이 수정 보완한 31개 문항 도구 중 2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실습교과(3문항), 실습내용(4문항), 실습지도(8문항), 실습환경(7문항), 실습시간(3문항), 실습평가(3문항)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문항은 역문항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부터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모집을 하였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에게 유인물을 통해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

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일반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몽골 간호대학생을 위한 설문지는 한국어와 몽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몽골 간호학과 교수 2인이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 간호대학생 190명, 몽골 간호대학생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의 연구대상자 수는 한국 간호대학생 187명, 몽골 간호대학생 100명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5에 양측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성 분석으로 χ^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는 ANCOVA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한국 24.02세, 몽골 20.45세로 몽골 학생이 나이가 더 적었으며($t=6.20$, $p<.001$), 성별은 한국과 몽골 모두 여학생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04$, $p=.307$). 종교는 한국과 몽골 모두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이 80.2%로 몽골의 53.0%보다 유의는 많았으며($t=14.82$, $p<.001$),

전공만족도는 한국과 몽골 모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한국이 52.4%, 몽골 47.0%보다 많았다($t=8.61$, $p=.014$). 주관적 건강은 한국과 몽골 모두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이 67.7%, 몽골이 71.0%로 차이가 없었으며($t=1.47$, $p=.480$), 대인관계는 한국과 몽골인 모두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이 67.4%, 몽골이 78%로 한국이 몽골보다 응답한 경우가 더 적었다($t=5.98$, $p=.050$).

3.2 대상자의 주관적행복감,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정도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한국 4.86점, 몽골 4.9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05$, $p=.088$)[Table 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한국 2.80점, 몽골 3.0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91$, $p=.001$).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실습교육 환경은 한국 3.15점, 몽골 3.1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48$, $p=.684$),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은 한국 2.82점, 몽골 3.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04$, $p<.001$). 실습업무부담은 한국 3.48점, 몽골 3.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73$, $p=.007$), 대인관계 갈등은 한국 2.30점, 몽골 2.4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58$, $p=.115$), 환자와의 갈등은 한국 2.34점, 몽골 3.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t=-9.01$,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2].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한국 3.42점, 몽골 3.4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06$, $p=.648$).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실습교과는 한국 3.64점, 몽골이 3.8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19$, $p=.030$), 실습내용은 한국이 3.20점, 몽골이 3.72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ing Students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표 1] 한국 간호대학생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차이

Variables	Categories	Korea(n=187)	Mongol(n=100)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en	20(10.7)	7(7)	1.04	.307
	Female	167(89.3)	93(93)		
Age(year)	<20	0	72(72.0)	172.56	<.001*
	21-22	64(34.3)	14(14)		
	23-24	82(43.9)	6(6)		
	>25	41(21.9)	8(8)		
		24.02±4.03	20.45±2.90		
Religion	Yes	37(19.8)	47(47.0)	14.82	<.001*
	No	150(80.2)	53(53.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8(52.4)	47(47)	8.61	.014
	commonly	84(44.9)	42(42)		
	Dissatisfaction	5(2.7)	11(11)		
Subjective health	Healthy	121(64.7)	71(71)	1.47	.480
	commonly	59(31.6)	27(27)		
	Not healthy	7(3.7)	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26(67.4)	78(78)	5.98	.050
	commonly	61(32.6)	21(21)		
	Bad	0	1(1)		

*; 나이, 종교 ANCOVA 처리

[Table 2]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N=287)

[표 2]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N=287)

Variables	Korea(n=187) M±SD	Mongol(n=100) M±SD	t	p
Subjective happiness	4.86±.83	4.92±.77	2.05	.088
Clinical practice stress	2.80±.50	3.09±.42	4.91	.001
Practice environment	3.15±.67	3.11±.64	0.41	.684
Undesirable role model	2.82±.66	3.28±.54	-6.04	<.001
Practical work load	3.48±.63	3.26±.69	2.73	.007
Interpersonal conflict	2.30±.73	2.44±.65	-1.58	.115
Conflict with the patient	2.34±.70	3.08±.59	-9.01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2±.44	3.47±.46	0.62	.648
Practical subject	3.64±.56	3.80±.59	-2.19	.030
Practice contents	3.20±.58	3.72±.59	-7.12	<.001
Practice guidance	3.45±.56	3.51±.57	-0.75	.455
Practice environment	3.49±.54	3.22±.62	3.79	<.001
Practice time	3.26±.81	3.45±.67	-1.98	.049
Practice evaluation	3.48±.75	3.35±.64	1.49	.137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Mongolian nursing students

[표 3]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

Variables	Subjective happi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Korean	Mongolian	Korean	Mongolian	Korean	Mongolian
Subjective happiness	1	1				
Clinical practice stress	-.211 (.004)	-.086 (.393)	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62 (<.001)	.185 (.065)	-.448 (<.001)	-.264 (.008)	1	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7.12, p<.001$). 실습지도는 한국이 3.45점, 몽골이 3.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0.75, p=.455$), 실습환경은 한국이 3.49점, 몽골이 3.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79, p=.001$). 실습시간은 한국이 3.26점, 몽골이 3.4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1.98, p=.049$), 실습평가는 한국이 3.48점, 몽골이 3.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t=1.49, p=.137$)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

한국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이며 ($r=-.211, p=.004$), 주관적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 ($r=.262, p<.001$)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 ($r=-.448, p=.008$)로 나타났다 [Table 3]. 즉, 한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r=-.264, p=.008$)가 있었으나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185, p=.065$) [Table

3].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r=-.086, p=.393$)으로 나타났다 [Table 3]. 즉,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간호학은 실천학문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임상실습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감소시켜 대상자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데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은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임상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공통적인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문화와 간호교육제도 등의 차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두 나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점수는 4.86점,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점수 4.92점으로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엔의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9개국 중 한국은 62위, 몽골은 70위로 한국이 행복지수가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21].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2].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이므로[23] 두 나라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주관적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내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행복한 나 되기 프로그램’, ‘현실치료를 적용한 행복선택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주관적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이와같이 한국과 몽골의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 보다 더 많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학생은 몽골 학생보다 실습업무 부담에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몽골 학생은 한국 학생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환자와의 갈등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몽골 간호대학생 4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실습을 감독하는 간호사는 본인 업무로 바빠서 자세하게 간호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며, 대상자 역시 주사를 줄 때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야기나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며,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면 불안하지만 참는 것으로 나타나 몽골 간호대학생들도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25]. 반면 한국 간호대학

생들은 역할 혼동, 성차별, 의료인 환자태도, 동료학생 간 비교, 이론과 실무의 차이, 실습 지도자 역할 미확립, 실습몰입 방해, 실습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26]으로 나타났다.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한국 간호대학생과 달리 임상실습 시 간호사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주사 주입 등 간호사와 같은 간호업무 활동까지 하고 있으며, 이런 직접적인 간호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한국 교육기관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 기준에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시행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한국 간호대학에서는 임상실습 전 체계적인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현장지도자와 교과목 지도교수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몽골 간호대학은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아직까지 체계가 미흡하며, 임상실습기관 규모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전담 간호사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2] 임상실습 교육의 질이 임상실습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임상실습교육기관으로 적합한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 한국 간호교육이 몽골 간호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점수가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학생은 몽골학생보다 실습환경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몽골학생은 한국학생보다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시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의 핵심 요인은 임상실습 환경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27] 특히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교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의과대학과 달리 간호학과의 전 임교원은 임상현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술기 지도 및 환자 대상 중재가 어려워 간호학의 실습 교육은 임상실습 현장지도자가 하게 된다[28].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 현장지도는 병원에서 간호 업무시간에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면서 임상실습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지도에 오류가 집중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임상실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학과 병원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과 병원은 임상실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몽골에서는 학교와 임상실습기관 협약을 맺을 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간호사를 임상실습지도 전담교사로 임명하고 있으며, 그 교사의 근무 일정에 맞춰 간호학생들의 근무표를 편성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임상실습 지도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몽골의 임상실습교육 제도는 현장 교수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몽골의 의원급 임상실습기관에서는 임상실습 전담교사가 배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 간호대학 교수가 병원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과 몽골은 임상실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교수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Ahn과 Kong[8]의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과 Cha[29]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교육 시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 체계마련과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행복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한국 간호대학생이 몽골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몽골 간호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몽골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몽골 간호교육기관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

국과 몽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I-S. Kwon,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5, pp.706-715, 2002.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University Handbook for the First Half of 2021. Seoul:Korea, 2021. [Internet].
- [3] K-H. Yang, G-Y. Ko, J-O. Ko, R. Kim, J-Y. Kim, Y-K. Kim, B-J. Park, S-O. Park, S-J. Park, I-S. Seo, Y-L. Son, S-M. Oh, K-D. Jeon and E-Y. Jin,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1, No.1, pp.59-74, 2017.
- [4] J-K. Kim,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47-59, 2014.
- [5] J. Chen, Y. Wu, Y. He, Z. Li, Y. Exhita, P. Qin, L. Chen and J. Sun,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Medical Students attending College in the Inner Mongolia Area of China", *Chinese Medicine*, Vol.3, No.2, pp.149-154, 2013.
- [6] H-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29-1144, 2015.
- [7] M-J. Kwon, 'Concept Analysis of Happiness', *The White Culture*, Vol.31, pp.17-32, 2012.
- [8] S-A. Ahan and J-H. Kong, 'The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 pp.54-61, 2021.
- [9] D. Flaming,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Vol.2, No.3, pp.251-258, 2001.
- [10] J-H. Kim and H-O. Je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2, pp.123-132, 2016.
- [11] S-O. Kim,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chool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3, pp.395-404, 2016.
- [12] M-K. Jeon and M-S. Kim,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40-48, 2017.
- [13] S-H. Ha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593-602, 2019.
- [14] S-H. Jeong and S-H. Park,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16, No.1, pp.47-54, 2013.
- [15] S. Lyubomirsky and H-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pp.137-155, 1999.
- [16] I-J. Kim, 'Seligman M. In: Positive Psychology. 2nd ed. New York, NY: Atria Books, 2004.
- [17] D-L.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18] S-L. Kim and J-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19] K-J. Cho and H-S. Kang,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63-74, 1984.
- [20] S-H. Lee, Y-S. Kim and S-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219-231, 2004.
- [21] United Nations,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UN, 2021. [Internet].
- [22] G-Y. Jo and H-S. Park,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1, pp.160-169, 2011.
- [23] L-J. Lee, 'A Study on Effect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n Job Stres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13, No.1, pp.251-290, 2010.
- [24] E-S. Lee, 'Effects of a Happiness Choice Program Based on Reality Therap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3, pp.503-514, 2015.
- [25] L. Khishigdelger, 'Real Lif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t the Clinical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8, No.4, pp.27-30, 2016.
- [26] H-K. Hyoung, Y-S. Ju and S-I. L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or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4, pp.394-404, 2014.
- [27] F-G. David, M-L. Esther, G-E. Maria Del Carmen and P-G. Vicente, 'Satisfaction with the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Regression Models and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cited 2021 March 11]
- [28] S-J. Shin, E-B. Yang, E-H. Hwang, K-H. Kim, Y-J. Kim and D-Y. Jung,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19, No.2, pp.76-82, 2017.
- [29] M-O. Kim and J-A. Cha,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fte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247-256, 2018.